

62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28차
일시	20. 8. 31. 18 : 30
장소	ZOOM

참석확인 (10/12)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총
0	0	0	0	0	0	X	0	X	0	0	0

□ 보고 안건

1. 단위별 특이사항 보고

- 총학생회 : 공약 사업 돕바 공동구매 시작, 안성캠도 참여 가능, SNS 등을 통해 공지, 수요조사별 게시글 공유가능하다면 공유 바람.
- 경경대 : 금일부터 다음 주까지 학우분들 대상으로 중앙대병원에 모금 진행 예정,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기부 예정, 금일 미비 강의계획서 유관 차장님께 전달 완료, 중간고사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대면/비대면은 교수님 재량에 따라 정하므로 중간고사 시험 방식이 교수님 재량이라면 중간고사까지 비대면 원칙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함. 단학대회 10월 6일 진행 예정
- 사과대 : 단학대회 9월 23일로 진행 예정
- 인문대 : 단학대회 10월 8일 진행 예정
- 간호대 : 단학대회 9월 22일 진행 예정, 단위요구안 작성하면서 규명 관련 문제점 발견하여 이와 관련한 요구안 작성 및 연서명 진행 중

□ 논의 안건

1. 선거 관련

- 롤미팅 자료 사전 보완 (첨부자료 참조), 기표소 협의
- 후보 추천서명 방식 (전자서명 방식 재논의 필요)
- 선거운동 관련하여 총학생회 내부 논의하여 1안과 2안 작성.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여 완성할 예정.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그 외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음
- 옥외유세나 합동공청회는 롤미팅에서 정해지므로 따로 수정하지 않음
- 합동공청회 때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장하는 사람 제한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선본별/언론사별 인원 제한 등
- 서울대 : 1안처럼 선본명으로 된 페이스북 페이지 따로 개설해서 관련 홍보물 및 게시물 게시했었음.
- 2안을 선택할 경우, 중선관위가 해야 하는 업무가 좀 더 많아짐. but, 사전에 문제점이나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음
- 올라가는 내용은 다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친 것을 다시 전달하여 올리기보다 중선관위가 올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 후보추천서명 방식 : 상대방에게 전자서명을 받는 것이 1건당 500원, 필요조건이 받는 사람의 이메일이나 연락처, 카카오톡 아이디 중 하나 필요함. 학생회는 학생들이 입학 당시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선본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선본에게는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공대의 경우, 링크만 만들어서 선본에게 주었음. 선본이 해당 링크를 학년별 단톡방이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홍보하는 것은 제한을 주지 않았음. 해당 링크에 서명을 하면 선관위에게 전달이 되었음. 해당 비용은 행정실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음.
- 자연대의 경우, 선관위한테서 링크만 받고 해당 링크를 공지방에 공유하였음. 금액 또한 행정실에서 지원을

받았었음.

- 7000명이라고 하면 350만원이 필요함. 학생처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에는 큰 비용임. 3일 기준으로 2300만원이 평균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선본이 부담하기에도 큰 금액임.
- 전자서명 방식을 제외하고 서명 방식은 네이버 아이디 인증을 통한 설문조사, 학생증 사진 인증 등의 방식. 문제는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음. 단과대 선거를 포함한 누적비용을 보면 천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이 큰 편임.
- 간호대 : 서명 관련하여 이클래스 대시보드를 국민청원 시스템처럼 후보를 추천한다는 등의 통일된 멘트를 게시글에 댓글로 남기는 방식을 행정실과 논의 중임. 이러한 방식을 학교와 논의하여 이클래스나 학교 관련 서버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음. -> 학교 측과 논의해보겠음
- 선거 운동 관련하여 더 고민해보시고 세부적인 피드백을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람
- 강의실 방문유세나 옥외유세는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음. 강의실 방문유세의 경우 비대면 강의가 많아서 줄어들 것 같음. 수업 시작 전이라면 줌 수업에도 참여하여 유세할 수 있도록 제공 해주어야 하는지 등.
- 줌으로 들어와서 선거유세를 할 경우, 교수님들이 줌 강의를 열기 때문에 교수님이 사전에 입장 및 줌 강의를 열어두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입장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교수님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전 조사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강의실 방문유세가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1~2분 정도하는 것인데, 줌 등으로 진행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 같음. 이러한 점에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강의실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교수님의 협조가 없다면 선본에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에서 사전에 협조나 허가 방면에서의 도움이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봄.
- 교수님 연락처나 이메일 취합하여 선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수님들에게 개별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음.
- 온라인 홍보 강화가 비대면 강의에 따른 강의실 방문유세를 대체한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줌 등을 이용하기보다 온라인 홍보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 줌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명단을 선본에 전달해주는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음. 다만, 교수님의 허가를 구하는 것은 선본의 역량에 맡기도록.
- 강의실 방문유세의 목적성을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강의실 방문을 제한을 두지는 않는 방향으로.
- 옥외유세는 아예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함. 합동유세만 선본이 2개 이상 나왔을 경우 진행하는 방향으로.
- 대면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을 거 같긴 함.
- 2학기 전면 비대면일 경우 옥외유세를 금지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옥외유세는 진행해도 될 것 같음.
- 기표소 : 기표소 설치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며 모바일 투표를 진행함에 따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줄이거나 늘려야 할 것 같은 위치
- 2018년도에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경관관 투표소가 서버 문제로 사용이 불가했던 적이 있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기표소 등이 필요할 것 같음.
-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예비 기표소를 두는 것이 필요한가 싶음. 대면일 경우에는 기표소의 인원을 보고 투표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기표소는 필요하다고 봄.
- 기존보다는 기표소의 수를 줄여 건물별로는 통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건물별로 하나나 권역별로 하나 정도. -> 310관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건물별 하나는 반대함.
- 비대면 강의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기표소 설치 위치나 개수를 정하면 좋을 것 같음.

2. 리더스포럼

- 23일 수요일 14시부터 진행 예정, 이전 제출했던 단위요구안 답변은 늦어도 14일까지 받을 예정
- 명단 및 사전 질의문 취합 진행(~9/16)
- 중운위 22명, 학생처 3명, 언론사, 총장단 등 약 35명, 안성까지 입장하면 50명 이상이 되어버림.
- 50명 이상이 모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운위도 각 단위별로 1명씩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함.
- 당일 현장 참석 명단 1안/2안 취합 후 학생처에 전달 예정 (1안 : 각 단위별 2명씩, 2안 : 각 단위별 1명씩)

- 안성캠도 함께 참여할 것 같음.
- 2학기 단위 요구안도 23일 날 전달 예정.
- 언론사를 줌을 통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지 -> 당일 현장 촬영 때문에 현장 참석함.
- 방식 : 해당 명단 전달받아서 이클래스 대시보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인원이 50명 이하로 조절이 필요할 경우라면 언론사 인원을 조절해야하지 중운위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언론사도 2~3명 정도의 적은 인원임.
- 최대한 각 단위별 2명씩 참여했으면 좋겠음.
- 리더스 포럼 오후 2시 진행인데 이 시간대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오후 6시 이후로 진행가능한지 조율해보겠음.

□ 의결 안건

1. 20-1 예산자치제 결산

- 아마농구 청룡 (지원금 : 800,000 원) : 150,000원 사용(이체내역+대회포스터 첨부)
- 청우회 (지원금 : 244,850 원) : 증빙 자료 공유 완료
- 청우회 영수증 첨부지 : 축구공을 구매한 것이 9월 6일인데, 축구공 구매의 시기가 영수증 제출 하루 전에 결제한 점에서 필요해서 구매한 것인지 남은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함인지 의문이 듦. -> 신청할 때 신청 사유가 축구공 구매였다는 점에서 시기가 직전이지만 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청우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축구공이 몇 개인지, 지출이 영수증 제출 직전이었는지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함. -> 사전에 신청 당시, 축구공 구매 사유가 대회를 나가기 위한 연습 때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대회를 끝나고 축구공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사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예산자치제가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축구공 항목 구매 지원이라는 사전 사유와 동일한 품목의 축구공을 구매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함.
- 이번에는 신청인원이 적었지만, 추후 경쟁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더 세부적인 심사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축구공이 1학기 대회만을 바라보고 구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동아리 활성화나 학생 자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므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함.
- 축구의 경우 8월 24일부터 28일에 대회가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축구 경기 기록이나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축구 대회가 취소되어서 참가비를 환불 받거나 대회가 미뤄졌는지 등의 대회 참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 농구는 예선을 진행 하다가 예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중단. 축구는 예선 진행 전에 경기 일정이 미뤄진 상황임. 주최 측에서 추후에 진행하려고 환불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대회참가비는 추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환불 등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청우회 단위의 경우 재심의 진행이 필요하다.’에 대한 의결 -> 총 10단위 중, 찬성 2단위, 반대 0단위, 기권 8단위 -> **부결****
- **‘20-1학기 청우회 예산자치제 결산에 문제가 없다.’에 대한 의결 -> 총 10단위 중, 찬성 7단위, 반대 1단위, 기권 2단위 -> **가결****
- **‘20-1학기 청룡 예산자치제 결산에 문제가 없다.’에 대한 의결 -> 총 10단위 중, 찬성 7단위, 반대 0단위, 기권 3단위 -> **가결****

2. 20학년도 1학기 미반환 학생회비 재배분

- 배분비율 : 역비율배정/추가배정/전학대회비 없이 기본배정액(2450), 중앙단위배정액(2300)
- 실질적으로 약 860명 정도만 반환됨.
- **‘2450원과 2300원으로 재배분 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대한 의결 -> 총 10단위 중, 찬성 10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 -> **가결****

3. 2학기 학생회비 배분

- 1학기 전학대회비 잔여분을 2학기에 활용 예정.
- 2학기 선거방식 일부 변경으로 인해 선거 홍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2학기 전학대회비 250원을 선거비로 사용하고자 함.
- 9500원 기준. 기본배정 4,400 / 역비율 250 / 추가배정 200 / 중앙단위배정액 4,400 / 대표자선거비 250
- 1학기에 학생회비 반환으로 인해 추가적인 행사 진행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음. 2학기에 온라인 형태로 축제도 진행할 예정이고, 학생들의 위한 행사를 확대 진행하고자 함.
- '9500원을 위와 같이 배분한다.'에 대한 의결 -> 총 10단위 중, 찬성 10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 -> **가결**

4.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18시 30분이나 19시 시작 예정
- '2020학년도 2학기 전학대회는 안전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확대운영위원회로 대체하여 9월 28일(월) 진행한다'에 대한 의결 -> 총 10단위 중, 찬성 10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 -> **가결**

□ 기타 안건

- 학생자치 차원에서 학생대표자 대상 2시간 정도의 반성폭력 교육을 2학기에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함.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함. 확대운영위원회 진행하는 날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따로 날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최대한 줌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날짜를 따로 정한다면 10월 24일이나 25일로 진행될 것 같음. 참여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단위별로 투표 진행하여 9월 11일까지 투표 결과 전달바람.
- 농활 대체 사업 : 각 단위별 농대를 초대한 특방에서 총학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전달받았는데, 각 단과대별 참여 단위를 조사하고 각 단위별 농대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추후에도 해당 특방이 유지되어 정보 교류 등의 차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해당 사업에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것은 아님.
- 올해 한자 졸업 요건이 폐지된 부분에서 NP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표기하지 않는 방식을 논의예정
- 개강하고 밤에 빼광이나 R&D 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직접적 제제는 어렵더라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직접적인 제제는 어려움,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공지, 벤치에 거리두기 표시, 벤치와 벤치 사이에 테이핑 등을 하여 앉기 어렵도록 하는 방식 등 해당 공간에 앉기 어렵도록 현장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 등
- 학생회 대면 회의 최소화 등을 전달바람.
- 16일까지는 질의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 2학기 단위요구안은 리더스포럼 때 전달해도 되고, 리더스포럼 때의 답변을 반영하여 추후에 전달해도 될 것 같음. 1학기 단위요구안에 대한 답변은 14일까지 서면으로 받아서 전달 예정.
- 1학기 단위요구안에 대한 전달이 너무 늦었던 것이라고 생각함. 지금쯤에는 답변이 전달되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했지 않았나 싶음. -> 1학기에 코로나로 인한 요구안들이 많다보니 1학기 단위요구안에 대한 전달이 좀 더 늦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음.